

말레이시아 국제 식품 관련 박람회



쿠알라룸푸르지사



작성자_ 서재희

주요 박람회 개요 및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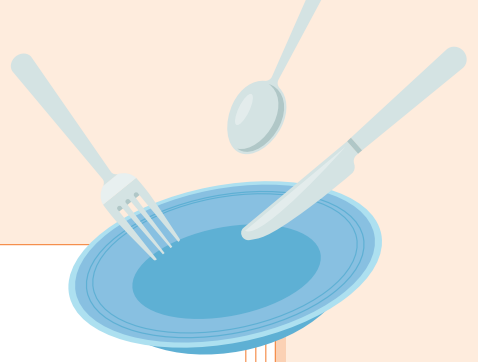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양한 국제식품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점점 더 성장할 추세로 보인다. B2B 국제식품박람회로는 MIFB, FDM by SIAL, MIHAS, FHM등이 있으며, B2C 박람회로는 Tastefully Food Expo가 있다. 올해 박람회 트렌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푸드 테크, 대체 단백질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박람회 브랜드의 경우 말레이시아 박람회에서 할랄 분야를 따로 강조하고 있어 할랄 거점 국가로 성장 중인 말레이시아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최근 박람회 운영은 종이 사용 없는 페이퍼 리스 디지털 운영을 지향하는 등 제로웨이스트 기반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박람회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주요 박람회 실적

	MIFB	MIHAS	FHM	Tastefully Food expo	FDM by SIAL
기간	'22. 7.4~6	'22 9.7~10	'22.3.29~4.1	연중 5회	-
위치	KLCC	MITEC	KLCC	5개 쇼핑몰 (KL, 페낭 등)	-
참가사	16개국 225개사	32개국 620개사	7개국 264개사	150개사	-
방문객	10,050명	32,356	12,680	1,200,000(연간)	-

*SIAL의 경우 2023년 첫 개최로 2022년 실적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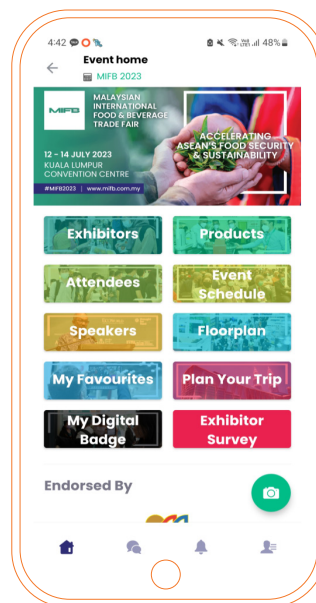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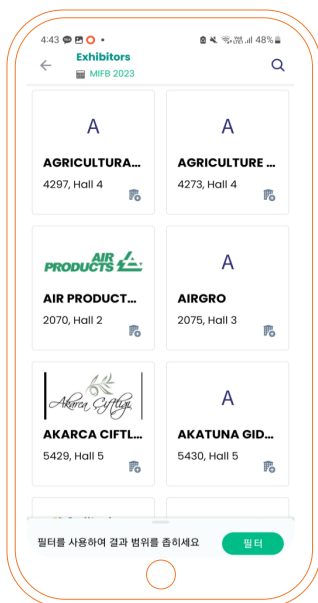
MIFB

말레이시아 전통의 최대 규모 국제 식품 박람회

Constellar 사에서 주최하는 말레이시아 국제식품박람회(MIFB, Malaysia International Food & Beverage Trade Fair)는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박람회다. 2023년에는 7월 12-14일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 2홀~6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MIFB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박람회를 목표로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전 방문객 디지털 패스 입장을 통해 페이퍼리스 박람회를 구현했고, 부스별 QR 코드 제작을 통해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해도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가능하게끔 구현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유효 바이어 및 업체 간 연락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박람회가 끝난 이후로도 지속적인 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참가 업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네트워킹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쌓이는 바이어 및 전시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품목 동향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전시 전용 어플리케이션 구현 모습



Food & Drink Malaysia by SIAL 세계적인 박람회 브랜드 시알(SIAL)에서 개최한 1회 식품 박람회

시알(SIAL) Salon International De L'Alimentation의 약자로 Comexposium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한 50년 전통의 글로벌 식품박람회 네트워크이다. 2023년 말레이시아에서 1회 FDM by SIAL(Food & Drink Malaysia by SIAL)박람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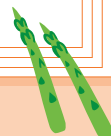
SIAL 네트워크는 프랑스, 캐나다, 중국, 인도 등지에서 11개의 정기 국제 식품박람회를 운영중인 세계 최대 규모 식품 박람회 네트워크다. 신규 박람회 개최지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로 동남아시아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고 2024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을 꼽았다. SIAL 네트워크의 박람회는 혁신상(SIAL Innovation)을 통해 우수 신규 품목 발굴에 힘쓰는 등 타 박람회와 비해 혁신, 푸드테크 등 신기술을 강조하며 미래 최신 트렌드를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2023년 1회 박람회는 MITEC(Malaysia International Trade and Exhibiton Center)에서 7월 4~6일, 3일간 개최되었다. 박람회 기간 동안 22개국에서 450여사가 참가하였으며 15,000여 명이 방문했다. 박람회 개최 전 쿡칭, 페낭, 조호바루 등 주요 2, 3선 도시를 돌며 바이어 대상 로드쇼를 진행하며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았다.

이번 박람회는 푸드 테크를 특별 전시 분야로 선정했으며 현지 푸드 테크 기관인 임팩트서클(Impact Circle)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미래 식품&농업관'이라는 이름으로 푸드테크 특별 전시를 진행해 관련 스타트업의 기술을 집약하여 볼 수 있도록 했다.



FDM by SIAL 2023 박람회장 내
푸드테크관 현장 사진



MIHAS(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세계 최대 규모 할랄산업 전시회

말레이시아 국제 할랄전시회(MIHAS,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는 말레이시아 국제통산산업부(MITI, Ministry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가 주관하고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가 주최하는 박람회로 식품뿐만 아니라 할랄 제약, 의료기기, 패션, 화장품, 금융, 무슬림 친화 관광 등 산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19회를 맞이하는 박람회는 9월 12~15일, 4일간 MITEC(Malaysia International Trade and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 예정이다. 2022년부터 진행된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참가자를 위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매칭 기술을 통해 잠재 바이어와의 상담 기회를 연결해주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규모는 2조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 할랄 시장을 선도하는 할랄 시장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할랄 산업 마스터플랜 2030을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할랄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할랄 관련 산업 박람회 또한 활기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 MIHAS 박람회 홍보물

FHM(Food&Hotel Malaysia) 관광과 식음료 업계 통합 B2B 박람회

informa market에서 주최하는 Food&Hotel 말레이시아 박람회는 4일간 열리는 식품 및 호스피탈리티 관련 박람회로, 전시회, 요리 시연대회,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말레이시아 외에도 싱가포르(FHA), 태국(FHT), 인도네시아(FHI) 등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진행되는 박람회로 싱가포르에서는 호레카(HoReCa,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 호스피탈리티 식품 서비스)분야와 식음료(F&B) 분야를 나눠서 개최하고 있다.



2022년도 박람회 현장사진

2023년 FHM 박람회는 9월 19~23일 4일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KLC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 분류는 항공/크루즈 케이터링, 제빵 유통업체, 백화점, 유통매장, 음료, 패스트푸드, 식품제조, 골프클럽, 슈퍼마켓, 호텔/리조트, 업체 내 케이터링, 레스토랑, 유통 집기, 자동화시스템 등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유관 기술 전시도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 프로그램 중 식품 경연대회가 추진될 예정으로, 요리경연대회(2023 Culinaire Malaysia)와 디저트 쇼케이스(Pastry Innovation Lab)가 진행될 예정이다. 요리 경연대회의 경우 지난 2022년 500여 명의 참가자와 50명의 심사위원이 참가해 개인, 팀간 경합을 펼쳤으며 올해는 1,5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저트 쇼케이스에서는 페이스트리 셰프가 직접 시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공예 디저트를 전시하는 등 다양한 디저트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테이스트풀리 푸드 엑스포(Tastefully Food Expo)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B2C 박람회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B2C 박람회 중 가장 규모가 높은 박람회는 Tastefully사의 테이스트풀리 푸드 엑스포(Tastefully Food Expo)다. 연간 주요 거점도시를 돌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박람회로 2023년 7월 기준 2번의 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며 11월까지 페낭, 조호바루를 포함한 5개 박람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방문객 대상 B2C 박람회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타 박람회들과 달리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몰 내 위치한 컨벤션 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할랄 엑스포를 별도로 신설해 9월 29일-10월 1일 3일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 내 대형 쇼핑몰인 ioi CITY MALL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판촉 할인을 통한 제품 판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가족, 친구 단위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바이어를 초청하여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사업 확장을 원하는 현지 진출 업체가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 인지도를 높이하고자 할 때 참가하기 좋은 박람회로 꼽히고 있다.



2023년 박람회 추진 일정

Insight

말레이시아는 할랄 거점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할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할랄 식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접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진출 기지 역할을 하는 주요 거점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맞물려 코로나 19 이후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오프라인 식품 박람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말레이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각 식품 박람회별 차별화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수출업체에게 맞는 박람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의 주요 품목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국제 식품 박람회에 참가한다면 주요 바이어 발굴 및 현지 동향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